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은 결심했다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라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습관 하나쯤은 남겨 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타협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파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노역하게 하며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다 몰아낼 필요 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신앙의 약함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까지 끌어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왜 끝까지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계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철 병거를 가진 족속을 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지만, 불신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부분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말입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남겨 둔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사기 1:27~36절 다 같 이

설 교 끝까지 몰아내지 못한 이유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기 있게 내려놓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